

벤츠 럭셔리 4-도어 쿠페 3세대 CLS 부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S 공식 출시

# 한국인이 사랑하는 CLS,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꾸다



2004년 1세대 출시 후 전세계 45만대 판매 '베스트셀링카' '300 d 4매틱'·'450 4매틱' AMG 라인 기본 적용 역동성 강화 고성능 모델 'AMG CLS 53 4매틱C+' 추후 출시 예정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럭셔리 4-도어 쿠페 3세대 CLS의 부분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S' (The new Mercedes-Benz CLS)를 공식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4도어 쿠페 CLS는 지난 2004년 1세대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45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특히 CLS는 한국 고객들에게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은 모델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CLS가 두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국가다.

이번에 출시한 더 뉴 CLS는 2017년 11월 개최된 LA 오토쇼에서 최초로 선보인 3세대 CLS의 부분 변경 모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 뉴 CLS 300 d 4매틱' (MATIC)과 '더 뉴 CLS 450 4매틱'을 우선 출시, 추후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CLS 53 4매틱C+'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되는 더 뉴 CLS는 세련된 라인과 스포티한 감각이 돋보이는 CLS 특유의 디자인에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가 더해져 4도어 쿠페의 역동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게 특징이다.

더 뉴 CLS 300 d 4매틱과 더 뉴 CLS 450 4매틱

은 AMG 라인(AMG Line)이 기본 적용됐다. 전면부는 새롭게 디자인된 메르세데스-벤츠의 스타 로고 그릴, AMG 전용 프론트 에어프린과 실버 크롬의 프론트 스플리터, 스포티한 공기 흡입구 등으로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했으며, 후면은 리어램프의 세련된 디테일과 트렁크의 AMG 스포일러 릿으로 스포티한 매력을 배가시켰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더 뉴 CLS 300 d 4매틱에는 19인치 AMG 5-스피크 경량 알루미늄 휠이, 더 뉴 CLS 450 4매틱에는 20인치 AMG 멀티 스포크 알루미늄 휠이 장착돼 AMG 라인 외관과 조화를 이룬다.

특히, 더 뉴 CLS 450 4MATIC에는 멀티빔 LED가 탑재되어 디자인뿐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완성도를 높였다. 멀티빔 LED는 84개의 개별 조절이 가능한 고성능LED와 울트라 레인지 하이빔을 통해 교통 상황에 따라 최적의 시야를 제공한다.

더 뉴 CLS 인테리에는 고품질의 소재와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조화를 이룬다. 전면부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와이드 스크린 콤팩트가 기본으로 적용됐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4도어 쿠페 3세대 CLS 새로운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LS'가 공식 출시된다. 4도어 쿠페 CLS는 지난 2004년 1세대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45만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로, 중국에 이어 한국 판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 미디어 디스플레이에는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자연어 음성 인식 및 터치 스크린을 통해 차량 내 다양한 편의사양을 조작할 수 있다.

운전석에는 나파 가죽으로 마감된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 휠이 탑재됐다. 스티어링 휠의 릿 앞면과 뒷면에 2존 센서 패드가 탑재돼 정전식 핸드-오프(Capacitive Hands-Off) 감지 기능을 갖췄으며, 스티어링 휠 스포크에 있는 터치 버튼을 통해 스마트폰처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계기판 및 미디어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다.

또 48볼트 전기 시스템과 2세대 통합 스타터-제너레이터(ISG, integrated starter-generator)를 갖춘 새로운 4기통 디젤 엔진(OM 654 M)이 탑

재됐다. 디젤 엔진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더 뉴 CLS 300 d 4매틱은 자동 9단 변속기로, 최고 출력 265마력과 최대 토크 56.1kg·m의 성능을 발휘, 가속 시 최대 20마력의 출력이 추가적으로 더해진다. 가변 타빈 구조를 가진 두 개의 수냉식 터보차저가 빠른 반응과 고른 동력 전달을 보장하며,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회수한 에너지로 타력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48볼트 전기 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돼 각각 최고출력 367마력과 최대 토크 51.0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가솔린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해 가속 시 22마력의 출력이 추가적으로 더해진다. 더 뉴 CLS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독보적인 기술

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최신 혁신 기술들을 탑재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Driving Assistant Package)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동 속도 조절, 제동 및 출발을 지원하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강력한 제동 및 벨트 텐서닝 등을 통해 운전자와 탑승객을 사전에 보호하는 프리-세이프 (PRE-SAFE),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등이 탑재됐다.

판매가격은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3 4매틱+ 1억4310만원,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43 4매틱+ 스페셜 에디션 1억696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제네시스 GV70 뉴미디어 아트로 만난다

내달 17일까지 전동화 모델전

제네시스는 다음달 17일까지 뉴미디어 아트스트 그룹 '아이비에이아이아이아이 시티'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GV70 전동화 모델을 ▲제네시스 수지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 ▲제네시스 스튜디오 안성 등 주요 거점에 특별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과 도교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IVAAIU CITY는 도시계획, 건축, 화학, 시각예술, 사운드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의 공간을 주제로 다양한 설치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GV70 전동화 모델이 가진 역동적이고 강렬한 에너지와 제네시스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감각적인 뉴미디어 아트로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는 IVAAIU CITY의 대표적인 작품인

'로드스케이프 MMXXX' (Roadscape MMXXX)를 차량 전시에 접목해 미래의 도로 경관에 대한 상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채로운 빛과 설치 조형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GV70 전동화 모델의 젊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예술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다"며 "제네시스는 정형화된 자동차 소품에서 탈피, 독창적인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럭셔리 전동화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내 판매를 개시한 'GV70 전동화 모델'은 제네시스의 중형 럭셔리 전동화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다. 배터리의 이상적인 배치와 서스펜션 튜닝 등으로 기존 내연기관 모델의 고급스러운 주행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스트 모드, e-터레인 모드 등의 탑재로 전기차 고유의 특성을 최적화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토요타, GR86·RAV4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실시

토요타코리아가 신형 GR86과 2022년형 RAV4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5월 16일 출시되는 신형 GR86은 국내에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출시되는 토요타 86의 후속 모델로, 토요타의 모터스포츠 브랜드인 '토요타 가주 레이싱' (TOYOTA GAZOO Racing)의 기술과 노하우를 담아 새롭게 탄생했다.

신형 GR86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스포츠카 중 유일하게 후륜 구동에 수동변속기를 조합한 모델로 2.4리터 수평 대향 엔진, 6단 수동 변속기 및 GR86 전용 신규 FR 플랫폼, 고강도 차체가 특징

으로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2종류로 판매된다.

또 고객 편의사양을 향상시킨 2022년형 RAV4 하이브리드도 새롭게 출시된다. 오는 4월 12일 출시 예정인 22년형 RAV4 하이브리드는 토요타의 스테디셀러 모델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TNGA 플랫폼을 통한 뛰어난 주행 안정성과 민첩한 핸들링, 크로스 옥터런 컨셉의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출시를 기념해 토요타는 GR86의 경우 선착순으로 토미카를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국내서 해외서...현대차 '쾌속 질주'

### 전기차·패밀리카·가성비 SUV 등 북미서 잇단 수상

현대자동차가 최근 전기차와 각종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들을 앞세워 북미를 비롯한 해외에서 잇달아 수상 소식을 전하고 있다.

21일 현대차에 따르면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최근 '히스패닉 모터 프레스 어워드'에서 '2022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됐다.

12년째 이어져 온 이 상은 스타일과 주행 성능, 기술,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서 북미 지역 히스패닉 소비자들에게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차량에 수여된다.

히스패닉 모터 프레스 설립자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등은 "현대차는 히스패닉계 운전자들이 중요시하는 차량 특성과 소비자 트렌드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최근 캐나다 자동차 전문지 오토가이드가 주관한 '2022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도 3개 부문을 수상해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

'올해의 고성능차' 부문에서는 BMW M3·M4와 포르세 911 GT3 등을 제치고 현대차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N이 선정됐고, 아이오닉 5는 BMW iX와 벤츠 EQS, 폭스바겐 ID.4 등을 누르고 '올해의 친환경차'로 뽑혔다.

투싼은 크로스오버 구매자들이 원하는 실용성과 부드러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포드 브롱코와 지프 그랜드 체로키 등을 제치고 '올해의 유틸리티차'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의 자동차 전문매체 Kelly Bluebook이 선정한 '2022년 최고의 패밀리카'에도 현대차의 2개 차종이 이름을 올렸다.

Kelly Bluebook은 안전성, 가격, 내구성, 주행 성능, 주행 편의성 등을 비롯해 화물 적재 용량과 아동 시트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내부 공간을 갖

췌는지를 평가해 매년 가장 우수한 패밀리카를 선정한다.

현대차 2022 산타페와 팰리세이드는 패밀리카로 적합한 내부 공간과 인포테인먼트, 운전자 지원 기술 등을 인정받아 각각 '최고의 2열 SUV'와 '최고의 3열 SUV'로 선정됐다.

아울러 Kelly Bluebook은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들어 '가성비'가 우수한 차량으로 현대차의 소형 SUV 배뉴를 3년 연속 선정하기도 했다.

배뉴는 우수한 연비와 독특한 스타일,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는 세계 3대 자동차상으로 꼽히는 '월드카어워드' 주관 '2022 올해의 차' 최종 3위권에 올라 수상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종 우승 차량은 다음 달 13일 뉴욕 오토쇼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

## 제네시스 내수 누적 50만대 돌파 눈앞...연내 100만대도 가능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에도 이달 중 내수 판매량 50만대 돌파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인기 모델인 G80은 이달 글로벌 판매 30만대 돌파가 확실시되면서 제네시스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현대차의 IR 실적(수출실적은 출고기준) 등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2015년 11월 브랜드 출범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66만4585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는 48만7037대가 판매돼 이달 중 50만대 돌파가 유력하다.

제네시스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60만대를 넘은 데 이어 이르면 다음달 말 늦어도 5월 중에는 7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의 판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전동화 모델 등 제네시스 라인업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올

해 내에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가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내다본다.

차종별로는 준대형 세단 G80(DH-RG3-전동화 모델)이 가장 많은 29만8천2대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 최근 G80이 월평균 5000대 이상 팔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글로벌 누적 판매량 30만대 돌파도 확실시된다.

최근 신형 모델이 출시된 대형 세단 G90도 제네시스 브랜드 초기 모델인 EQ900을 포함해 상반기 내에 누적 10만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레저용 차량(RV) 선호 트렌드와 북미 수출 확대에 힘입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GV80도 지난달까지 전세계에서 9만8492대가 팔려 이달 중 누적 10만대 돌파가 유력하다.

제네시스는 2015년 11월 국산차 첫 고급 브랜드로 G90(당시 국내 차명 EQ 900)을 출시하며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이 군림하고 있던 글로벌 고급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연합뉴스

당시 현대차 부회장이었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제네시스 브랜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외부 인사 영입과 조직 개편까지 브랜드 출범 전 과정을 주도했다. 그는 당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 직접 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는 오직 고객에게 있다"며 제네시스 브랜드 개발 과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제네시스는 출범 첫해인 2015년 530대를 판매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총 12만8365대를 팔며 처음으로 글로벌 연간 판매 10만대를 넘겼다.

제네시스는 올해 들어서마자 캐나다 자동차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차' 3관왕에 오른 등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제네시스가 운영 중인 국내 최초의 차량 구독 서비스 '제네시스 스펙트럼'의 누적 가입자 수도 현재 8500명을 기록하는 등 1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합뉴스